나이지리아에 심은 LG의 '라이프 이즈 굿'

무정전 3번째 무료 세탁방 열어
임원사회공헌기금으로 희망 전달

LG전자가 물과 전기 부족으로 고생하는 나이지리아 주민을 위해 무료 세탁방을 마련했다.

LG전자는 25일 나이지리아 카노주 LG 브랜드샵 일부 공간을 '라이프스 굿 위드 LG워시'로 꾸몄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간은 최신 세탁기와 건조기, 다리미와 세제 등 빨래에 필요한 용품을 완비했다. 특히 정전이 일어나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력 공급기(UPS)도 설치했다. 편의를 위한 에어컨도 함께 뒀다.

앞서 LG전자는 나이지리아 오그바와 음보음바 마을에 무료 세탁방을 설치한 바 있다. 2만5000여명 주민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세탁한 옷만 19만 벌을 넘는다.

LG전자는 나이지리아에 무료 세탁방을 열었다. /LG전자

LG전자는 '임원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세탁방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2004년부터 임원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LG전자는 나이지리아 무료 세탁방으로 현지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설 맞아 떡국 배식 봉사활동

하이트진로가 설을 맞아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설음식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 나눔봉사 활동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이웃들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떡국 배식 봉사를 펼쳤다. 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용 양말, 핫팩과 생수 등을 전달하며 새해 복도 함께 기원했다.

지난21일에는 24개 사회복지기관에 만두와 가래떡 등 약 8500인분의 설 음식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올해에는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맨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들에게 배식 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청년주택이 '님비'라고?

기자 수첩

정 연 우
〈파이낸스&마켓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님비(NIMBY·쓰레기 처리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 집 근처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청년이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다. 현금부자,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면 자기 돈으로 서울 내 역세권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옥탑방, 반 지하, 고시원을 오가는 20~30대에게 청년주택은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은 주거공간에 대한 2030의 갈망에 찬 물을 끼얹는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청년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한 청년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빈집을 구입하고 그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세입자가 시민이 되는 집' 이라는 콘셉트로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공급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표면적 근거는 교통 혼잡, 학급과밀화 등 공공주택이 도심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 근거는 특정 연령이나 소득, 성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거주가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다. 이는 정부 정책 사업인 행복주택과 대학기숙사 건립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다.

돈 없는 청년이 발붙일 공간은 없는 것인가. 청년들도 질 좋은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다. 청년주거빈곤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대가 함께 보폭을 맞춰야 한다.

/ywj96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8일 (음 1월 4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4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60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72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84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소 **37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49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61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73년생**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85년생**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호랑이 **38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50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한다. **62년생** 배우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74년생** 윗사람의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86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토끼 **3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51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마라. **6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5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87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용 **40년생** 지나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52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64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76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줄이고 긴축재정. **88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뱀 **4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겠다. **53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65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77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89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말 **42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54년생** 성공은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한다. **6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78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90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양 **43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55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나. **67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79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도 좋다. **91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원숭이 **44년생**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56년생** 양보다는 질을 따지고 물건을 구입. **68년생** 회사 밖은 전쟁터이니 이직은 신중하게. **80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2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닭 **45년생** 자신을 격려하라. **57년생** 아랫사람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9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81년생**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93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개 **46년생** 오늘의 불운을 어제의 교만이다. **58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70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82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94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돼지 **47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일이다. **59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 **71년생** 노루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 **83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95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3	
		8	2					4
1			7					
	6			8				1
3		2	4		1			
	8		6	2		3	5	
6				7			8	2
			8		9			
		5		3		6		

								2
		1				8	6	
	7				5	4	3	
						1	9	
					6		4	8
		9		5				
	3	7	4					
	9	2	8	7				5
1				9			7	

스도쿠 정답

7	4	6	2	3	1	5	9	8
3	1	5	9	6	8	7	4	2
2	8	9	4	7	5	6	1	3
9	5	3	7	2	6	1	8	4
4	8	1	6	9	4	3	5	7
6	7	4	5	8	3	9	2	1
1	2	7	8	5	9	4	6	3
5	9	8	3	4	7	2	1	6
8	3	2	1	6	2	9	7	4

5	7	4	9	1	8	2	3	6
9	3	8	2	5	6	1	7	4
1	2	6	7	4	3	8	9	5
7	6	9	3	8	5	4	2	1
3	5	2	4	9	1	7	6	8
4	8	1	6	2	7	3	5	9
6	1	3	5	7	4	9	8	2
2	4	7	8	6	9	5	1	3
3	8	4	6	1	7	9	5	2

1	6	8	5	9	2	3	7	4
4	9	2	8	7	3	6	1	5
5	3	7	4	6	1	2	8	9
6	4	9	1	5	8	7	2	3
7	1	3	9	2	6	5	4	8
8	2	5	7	3	4	1	9	6
9	7	6	2	8	5	4	3	1
2	5	1	3	4	9	8	6	7
3	8	4	6	1	7	9	5	2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목에 힘주지 마라

'엄마는 자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줄 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보면 호감 있는 줄 안다.' 유머로 떠돌던 이야기인데 사람의 마음을 재미있게 꼬집고 있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걸 말한다.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도 가끔은 착각하면서 산다. 굽신거리고 떠받들어 주는 대접을 받으면 자기의 인품에 사람들이 반한 줄 안다. 기고만장에 빠지는 사람 중에는 장성살 사주가 많다.

장성살은 글자 그대로 군대에서 별을 단 장성을 말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장성살 사주는 기가 센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서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최고 잘나간다고 여긴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과 소통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혼자서 지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들끓는다. 살의 기운이 태동한다. 대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익 때문이다.

당장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굽신대는 것이고 떡고물이라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을 맴돈다. 언젠가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잘 보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때야 타고난 사주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마음 나눌 사람이 없고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 팔자에 장성살이 있으면 잘 나갈 때 목에 너무 힘주지 말아야 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 숙일 때.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75호